



보도자료

2025. 5. 25(일)

임세준 빛의혁명 시민본부 (010-9445-0989)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주거안정특별위원장 등 책임당원 51인 탈당 및 이재명 후보 지지 공식 선언

- 민주공화국 근간 흔든 비상계엄, 진심어린 사과 조차 없어-
- 중도실용주의 가치 실현할 책임자 이재명 후보지지 -

- 유정기 부산광역시당 주거안정특별위원장 등 국민의힘 책임당원 51명이 국민의힘 탈당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 이들은 25일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 대회의실을 찾아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도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더 이상 원칙과 상식을 지키지 못하는 내란 동조세력과 손잡는 정당과는 함께 할 수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 아울러 유 前 위원장 등 51인의 책임당원들은 “이재명 후보는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실현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라며, “그의 리더십을 믿고 단호하게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 이날 자리를 함께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 총괄선대위원장은 “부산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힘 탈당이라는 큰 결단을 내리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 “여러분의 용기있는 선택과 결단이 부산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 이어 “해양수도 부산으로의 도약과 시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말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현장사진 2매



※ 기자회견문 전문

[국민의힘 탈당 및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전 국민의힘 책임당원이자 부산광역시당 주거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원칙도, 상식도, 양심도 저버린 채 내란 동조세력과 손잡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저 유정기와 함께 중도실용주의 가치를 믿고 입당했던 동지들과 오늘 공식적으로 탈당을 선언합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힙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든 비상계엄 사태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날 벌어진 일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정치적 범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단 한 차례의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안 해도 될 선거를 국민 혈세로 치르면서도, 국민의힘은 반성과 책임 대신 기득권 수호와 국민 분열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저버리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며, 중도실용주의마저 부정하는 이들과는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된 후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국민 통합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이며,

서민경제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실천형 후보이며,

다름을 인정하며 중도실용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그는 분열을 치유하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준비된 유일한 대안입니다.

우리는 그의 리더십을 믿으며 단호하고 분명하게 지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25일

[구호 삼창 - 참석자 전원]

12.3 사태를 방조한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내란 주도에 책임 있는 김문수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중도실용과 민생경제 회복을 실현할 유일한 후보, 이재명을 지지한다!

(지지한다! 지지한다! 지지한다!)

국민의힘책임당원탈당 및 민주당 이재명후보 지지선언

참석자명단

유정기 안상호 천성복 서동울 조한순 하연순 전윤섭 장덕호 구보영
유동화 홍태호 정순단 하홍엽 이순희 송수연 송숙경 윤근자 손민우
유수정 이기운 정수정 심철우 강영자 정성인 유윤옥 민덕기 안병단
송효임 이동수 정두섭 심창수 박한모 고영래 김용분 김이주 선병환
왕상동 최경희 김흥국 변월섭 박성희 이봉영 전석종 박준완 장현택
남영현 서정일 구종수 최영주